

# 〈에밀레종〉 전설과 그 소설적 변용 연구

李志映

## 1. 서 론

심청전, 춘향전과 같은 고전소설이 여러 설화에 빚지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지만, 현대소설 작가들도 고전설화를 소재로 작품화하는 경향이 제법 많다. 예컨대 김동리의 원앙생가, 황토기, 박종화의 아랑의 정조, 오영수의 은넷꼴 이야기, 장자表述, 수련 등은 문헌·구비설화를 제재로 삼아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류의 작품들을 여러 작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현대소설에서 설화의 작품화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이처럼 설화는 서사문학의 원천으로서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에 소재로 사용되거나, 그 자체가 작품의 중요한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소설작품에 나타나는 설화를 찾아내어 그 근원이 되는 설화의 모습과 변용된 양상이나 기능을 고찰하는 일은 설화문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sup>1)</sup> 본고는 이 중에서도 현대소설에서의 설화의 변용문제를 다루려는 의도에서 집필된 것이다.

그런데 설화가 작품화된 현대소설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소설을 양산하는 작가를 선정하여 작가의식이나 소설화 기법을 문제삼을 수 있겠고, 유사한 설화를 소재로 한 작품<sup>2)</sup>들을 택하여 그 변용양상을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본다.

1)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 출판부, 1970, pp. 50-51.

2) 장자못 전설을 소재로 한 강경애의 〈인간문제(1934)〉, 한무숙의 〈돌(1955)〉, 오영수의 〈수변(1962)〉이 좋은 예가 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후자의 문제로 모아진다. 〈에밀레종〉전설과 이를 소재로 작품화된 장·단편의 소설이 우리의 곁에 있어 좋은 연구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 전설은 비극적 성격 탓인지 구전현상에서 채록된 자료는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기재자가 문체를 바꾸어 기록한 자료들은 쉽게 찾아진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銅鐘인 奉德寺鐘의 聲價와 함께 이에 얹힌 유래담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鑄鐘當代의 비슷한 역사적인 상황과 결부시켜 볼 때 이 전설뿐만 아니라 역사적 전설의 문제도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바로 이러한 이유가 본 논문의 출발동기가 된다. 이에 우리는 우선 〈에밀레종〉전설의 구체적 자료의 실상을 살펴본 뒤, 현대소설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시작으로 해석되어 변용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 2. 〈에밀레종〉전설의 전승양상과 특징

### 2. 1. 전승양상

신라 계36대 惠恭王 6년(770년) 12월에 완성된 奉德寺鐘(一名 聖德大王神鐘)은 종의 예술성뿐만 아니라 주종에 얹힌 애절한 사연으로 인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종은 에밀레종으로 더 잘 불리운다. 〈에밀레종〉 전설은 「종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결한 아이를 쇳물에 넣어 완성한다」는 줄거리로 되어 있으며, 스위 人身供犧譚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승자료를 보면 자료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두 이유 때문에 어린 아이가 죽는 쇳물에 넣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즉 淨財를 거두려 다니던 중에게 ‘시주할 것이 없으니 아이라도 가져가라’고 한 여인이 뒷날 자신의 失言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을 빼앗기게 되는 자료군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자신의 부정 때문에 종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自發的으로 자신의 딸을 布施하는 자료군이 있는 것이다. 여인이 자신의 실수로 아이를 빼앗긴다는 것과, 자발적인 信心으로 아이를 바친다는 것은, 이야기가 지니는 의미뿐만 아니라 향유자의 성향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일단 두 자료군을 구분하여 다루어 볼 필요를 느낀다. 두 자료의 실상을 점검함으로써 원래의 모습을 재구할 수 있으며, 〈에밀레종〉 전설이 지니는 전체적인 의미망을 살펴볼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전자의 자료군을 편의상 「여인실언」형으로, 후자의 자료군을 「자발보시」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먼저 「여인실언」형을 살펴본다. 이 형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록지와 해당 면수만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① 한국민간전설집, B편, p. 211. <sup>3)</sup>  | ② 조선구전문학연구, p. 135. <sup>4)</sup> |
| ③ 신라전설, B편, p. 34. <sup>5)</sup>      | ④ 한국의 전설, p. 399. <sup>6)</sup>   |
| ⑤ 한국구비문학대계 7-2, p. 298. <sup>7)</sup> | ⑥ 신라의 전설집, p. 56. <sup>8)</sup>   |
| ⑦ 전북민담, p. 74. <sup>9)</sup>          |                                   |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먼저 기본적인 서사단락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a. 주종의 배경(淨財거두기)

- A. 주종의 계속된 실패로 모든 사람이 걱정한다.
- B. 노인이 나타나 ‘시주할 것이 없으니 어린애라도 가져가라’고 한 여인의 不敢한 농담을 지적하며, 그 아이를 데려와야 된다고 일러준다.
  - b<sub>1</sub>. 日官이 어린애를 셋물에 넣으라고 아뢴다.
  - b<sub>2</sub>. 女兒를 人柱로 셋물에 넣어야 한다는 소문이 퍼진다.
- C. 住持는 정재를 거두려 다녔던 중들을 불러 여인의 그러한 失言을 확인한다.
  - c<sub>1</sub>. 住持가 중들에게 시주 도중 어린애를 준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여부를 묻는다.
- D. 왕명으로 여인의 아이를 빼앗는다.
  - d<sub>1</sub>. 여인은 부처님의 뜻으로 알고 순순히 아이를 준다.
- E. 어린애는 셋물에 던져지고, 鐘이 완성된다.

3)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84.

4)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5) 손대호·손정호, 신라전설, 學友社, 1968.

6) 박영준 편, 한국의 전설(제 3권),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7) 조동일·임재해, 대계 7-2(경북 경주·월성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8) 경주시, 신라의 전설집, 1980.

9) 최태옥, 전북민담, 형설출판사, 1982.

## F. 아이의 울음소리

민담과는 달리 이야기 자체로서의 有機的인 짜임새를 갖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는 전설의 성격<sup>10)</sup>에 비추어 볼 때, 이 유형의 각편들도 위에서 정리된 서사단락의 순서대로 일정하게 전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sup>11)</sup> 게다가 사실 규명 지향적인 전설의 성격상 대상의 제시나 증거의 확인 등이 구술양식에 있어서 특정적인 요소<sup>12)</sup>임에도 불구하고, ①, ⑤에는 그러한 부분인 α단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sup>13)</sup>

이 유형에서 중요한 단락은 A이다. 2代에 걸쳐 이루고자 한 봉덕사 종의 주종계획이 계속 실패로 끝난다는 것은 왕이나 주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시련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B단락에서 그 고민이 해결된다. 봉덕사 鐘神인 노인이 주지의 꿈에 나타나 주종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①, ②, ④). 이 단락에서 핵심 요소는 여인의 실언과 인주공양이다.<sup>14)</sup>

C단락에서 여인의 실언이 경재거두기 시주 도중에 있었음이 중들을 통해 드러난다. 鐘神의 계시가 있는 경우 주지가 중들을 모아서 이를 확인하는데, 일관의 진언이나 소문으로 주종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여타 각편에도 역시 주지가 여인의 실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D단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이를 나라에서 빼앗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거대한 役事에 害가 되는 여인의 不敬行爲를 징벌한다는 뜻에서도 나라에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이 원래의 모습일 듯하다. 귀한 자식이 뜨거운 쇳물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할 부모

10) 장덕순 외 三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p. 44.

11) 그러나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합리적인 이야기가 전형되는 방향으로 단락 을 설명해 나갈 것이다.

12)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pp. 28-31.

천혜숙은 여기서 전설의 구술양식을 대상제시부, 本譜部, 증거제시부, 評決部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최래옥은 전설의 진행구성을 발단부, 전개부, 결말부, 證示部로 나눈 바 있다. 최래옥, 설화와 그 소설화 과정에 대한 구조적 분석, 국문학연구 7집, 국문학연구회, 1968, pp. 22-25.

13) 특히 ①에는 F단락도 나타나지 않는다.

14) 그러기에 ②, ③, ⑤에서는 여인의 실언 대목이 크게 부각되기도 한다.

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유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E, F 단락에서 어머니의 실수로 아이는 첫물에 던져지고 종이 완성되지만, 아이가 어머니를 원망하며 부르는 듯한 에밀레 종소리가 울린다. 이러한 아이의 울음소리는 곧 이 전설의 비극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 「자발보시」형을 살펴볼 차례인데, 역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록지와 해당 면수만으로 제시해보이면,

- |                                    |                                    |
|------------------------------------|------------------------------------|
| ① 신화전설의 신라, p. 129. <sup>15)</sup> | ② 朝鮮の神話と傳説, p. 50. <sup>16)</sup>  |
| ③ 한국민간전설집, p. 208 <sup>17)</sup>   | ④ 영남사적과 史話, p. 109. <sup>18)</sup> |
| ⑤ 신라전설, p. 30. <sup>19)</sup>      |                                    |

등이 있다. 논의를 풀어 나가기 위하여 각편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서사 단락을 정리하기로 한다.

#### a. 주종배경

- A. 工匠 一典(下典<sup>20)</sup>)이 계속 주종에 실패하자 모두가 비난한다.
- B. 一典의 과부 누이는 자기의 不德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여긴다.
- C. 시주 온 종이 그녀에게 어린애를 人柱로 해야 종이 완성된다고 일러준다.
- D. 누이는 고민하다가 오빠를 위하여 자신의 딸을 주종에 바치기로 한다.
- E. 누이의 청원에 어린 딸은 첫물에 던져지고 종이 완성된다.
- F. 아이의 울음소리

A 단락에서는 주종을 담당한 工匠(혹은 鑄工) 一典이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주종의 실패와 이에 대한 책임이 一典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추궁되고 있다. B 단락에서는 工匠의 집에 기거하던 과부 누이동생이 자신의 부정과 부덕 때문에 오빠의 일이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한

15) 宋錫夏, 신화전설의 신라, 朝光 1호, 1935. 11, (설화·소설의 연구, 최철·설성경 엮음, 정음사, 1984, 所收)

16) 申來鉉, 朝鮮の神話と傳説, 1943.

17) 최상수, 앞의 책.

18) 梁昇靈 編, 嶺南史蹟과 史話, 교통문화사, 1956.

19) 손대호·손정호, 앞의 책.

20) 삼국유사에 皇龍寺鐘을 만들었던 匠人的 이름으로 下典이 보인다. (...鑄皇龍寺鐘 長一丈三寸...施主孝貞伊王三毛夫人 匠人里上宅下典 〈卷第三 塔像第四 皇龍寺鐘芬皇寺藥師奉德寺鐘〉)

다. 자신의 결점이 정성과 정결함이 요구되는 공사에 허물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C단락에서 주종 방법을 시주 온 중에게 물었는데,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어린애를 끓는 쇠물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신앙심이 없이는 좀처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D단락에서 누이는 오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주종에 팔을 바치기로 결심한다. 오빠의 반대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E, F단락에서 누이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회성정신으로 아이는 뜨거운 쇠물에 던져지고 종이 완성된다.

## 2.2. 전승적 특징과 그 의미

앞서 두 유형에서 추출된 핵심단락 6개를 보면 B, C, D 세 단락에서 내용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단락은 인주희생이 이루어지는 배경에 해당한다. 먼저 우리는 이 두 유형에서 일단 〈주종의 실패—인주, 아이의 울음소리〉라는 공통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인주희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인 B, C, D 단락을 추상화 하면 「여인실언」형은 〈여인실언—종신의 현시—아이 악탈〉이 되며, 「자발보시」형은 〈여인의 죄책감—중의 교시—자발보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위 두 유형의 단락C를 자세히 보면 주종방법을 누가 일리주느냐만 다를 뿐, 그것이 모두 주종을 도와 완성할 수 있는 방법 교시라는 점에서 두 단락의 성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단락C는 똑같이 ‘원조자의 교시’라는 추상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전승되는 〈에밀레종〉 전설의 내용상 필수적인 핵심요소를 〈① 주종의 실패, ② 원조자의 교시, ③ 인주, ④ 아이의 울음소리〉로 보고자 하며, 이들을 각각 모티프라 부르기로 한다.

인주희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유형별로 차이를 야기한다는 것은, 곧 이야기의 의미 지향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야기한다는 말과 같다. 그러면 이제 이들 유형이 지니는 의미상 특징을 하나씩 점검해보기로 한다.

먼저 「여인실언」형에서 종이 완성되기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여인의 失言과 不敬罪이다. 종과 국가의 수호신인 노인의 교시를 보면, 주종의

실패의 원인을 여인의 不敬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왕실과 여인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주종을 방해한 적도 없고 주종과 무관한 여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유형에 나타나는 갈등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이 유형에서는 아이 약탈로 인하여 주종 동안의 정성스러운 모습과, 완성된 종의 신성함은 잘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유형이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람들이 여인의 실언을 곱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것 같다. 곧 쓸데없는 빙소리를 내뱉는 여인의 경솔함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유형이 지니는 합의는 복합적이어서 사람들은 가난한 여인이 겪는 억울함과 시련에 동정하여 약탈행위에 반감을 가졌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인의 경솔한 부정에는 못마땅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발보시」 형에서는 匠人的 개인적인 능력과 왕실·國人們과의 갈등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종을 빨리 완성하지 못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장인의 능력으로 돌리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종의 실패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여인실언」형과 공통적이다. 그런데 이 유형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장인과 그 누이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번민과 희생이다. 여인이 주종실패의 책임을 자신의 不貞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왕실에 의해 여인의 不敬이 그녀의 탓으로 돌려진 「여인실언」형에서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 그것은 이차적인 책임이다. 그것도 여인이 스스로 죄책감에 의해 굴레를 쓰는 것이다.

결국 주종 도중의 갈등은 여인의 인주보시에 의해 해소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그녀가 오직 딸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였지만, 오히려 순결한 마음으로 어떠한 재물보시보다도 귀중한 인주보시를 자발적으로 감행했다는 데서 이 이야기의 합의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러기에 이 유형에서는 주종과정의 정성과 장인정신 뿐만 아니라 종의 아름다움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이상 우리는 두 유형의 특정적인 면을 살펴보았거니와,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주희생이 〈약탈〉과 〈보시〉라는 상반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유형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傳說은 현재 향유종이 그것을 믿고 있는 한 사실이며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전승되고 있는 〈에밀례종〉 전설의 두 유형 모두 나름대로 의미와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두 유형 중 어느 것이 원래의 모습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용이하게 해줄 자료로서 서사무가인 〈생굿〉과 〈원구님 청배〉를 들 수밖에 없다. 각각 학경도, 평안도 지방에서 채록된 이 두 무가에는 〈에밀례종〉 전설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1)</sup> 이제 두 무가에서 본 전설이 삽입되어 있는 부분의 특징을 살펴보고 앞서 제기했던 의문에 접근하기로 한다.

먼저 〈생굿<sup>22)23)</sup>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삽화는 〈황금산 금강절의 인경 주조담〉인데, 이는 바로 〈에밀례종〉 전설의 「여인실언」형과 흡사하다. 여기서도 여인의 실언과 이에 대한 정벌이 중심 내용으로 부각되어 있다. 다만 강제적인 아이 약탈이 아니고 아이(원맥이)가 제발로 걸어나와 중을 따라 나선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鐘神이 나타나 주종의 방법을 일러주는 대목이 없다. 게다가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없다.

그 결과 여기서는 인경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이나 주종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정성의 개입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억울하게 죽은 원맥이의 혼을 풀어주는 뒷풀이 대목이 있어 무가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생굿〉에 삽입된 〈에밀례종〉 전설은 핵심적인 내용이 파괴되지 않으면서, 인경주조 佛事에 얹힌 유래담으로서 쉽게 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원구님 청배〉를 보면, 이 무가는 〈에밀례종〉 전설이 전체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 다만 여기에 망치가 된 원목이 이야기가 끝부분

21) 이러한 지적은 이미 선학에 의해 이루어졌다.

徐大錫, 서사무가연구, 국문학연구 제 8집, 국문학연구회, 1968, p. 126.

張德順,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출판부, 1970, pp. 347-348.

22) 威興에서 채록된 이 무가(姜春玉本)를 徐大錫교수는 ‘帝釋本풀이 연구’에서 이미 여타의 자료와 함께 자세히 논한 바 있다.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pp. 19-145.

23) 자세한 것은 서대석의 위의 책, p. 62 참조.

에 덧붙여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은 〈셍굿〉에서처럼 〈에밀레종〉 전설의 「여인실언」형과 흡사하다. 여기서도 여인의 실언과 이에 대한 징벌이 중심 내용으로 부각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중이 원산이를 테려가려고 하자, 그 어머니가 僞計를 써서 아이를 감추는 대목이다. 하지만 좋은 숨겨진 원산이를 기어이 찾아 테려간다. 역시 강제적인 아이 약탈의 변용된 모습이다. 그러나 鐘神의 현시는 〈셍굿〉에서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이 무가에서는 종신의 현시 이외에 「여인실언」 형에서 추출된 단락들이 빠짐없이 나타나는 것도 큰 특징이다. 또한 어린애의 울음소리는 더욱더 한이 맷혀 있다.<sup>24)</sup>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삽화 역시 주종 과정의 정성 여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원구님청배〉에 삽입된 〈에밀레종〉전설은 거의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한층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두 무가 속에서는 전설에서보다 여인의 실언이 크게 비판되고 있음이 눈에 띄는데, 모두 여인의 경솔함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여기서도 주종실패의 원인을 여인의 不淨한 말에 돌리고 있다.

이상 두 무가를 살펴보았거니와 여기에 삽입된 〈에밀레종〉 전설은 그 중에서도 「여인실언」형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주지하듯이 서사무가가 설화를 수용할 때는 되도록 흥미있고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택하게 된다. 그것은 청중의 재미를 돋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인실언」형은 「자발보시」형보다는 전승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은 원형에 가깝다고 본다.

이러한 원형 추정 문제는 신라 당대의 서민들의 불교신앙<sup>25)</sup>을 전하는 사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불교의 황금기인 新羅中代에는 서민들의 신앙이 일반화되어 布施도 생활화되었음은 삼국유사 속의 많은 보시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sup>26)</sup> 그런데 本전설과 같은 인주희생담은 보시의

24) 그 소리는 ‘에미의 혀를 뽑아 신창에 박아 신어도 애석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25) 이에 관한 논의는 金煥泰, 삼국시대 서민들의 불교신앙, 한국불교학 제12집, 한국불교학회, 1987 참조. 본고는 위 논문의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26) 그 중 惠宿, 信孝, 向得의 이야기는 보시로서 捨身譚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黃湊江, 新羅佛教說話研究, 일지사, 1975, pp. 138-

사연이나 신앙의 정도면에서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구전설화에 관심을 가졌다는 一然이 이 이야기를 거기에 실지 않는 점이 이상하다.

이렇게 보면 〈에밀레종〉 전설은 ① 일연 당대에는 전승이 중단되었거나, ② 전승이 되었어도 鄉傳과 같은 사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일연이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sup>27)</sup> 아니면 ③ 일연이 이 전설을 알면서도 택하여 실지 않았거나, ④ 애초에 그러한 이야기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①, ②의 경우는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삼국유사의 설화 수용이 구전설화의 가치를 충실히 발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으나 당대의 구전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쪽만 택했다는 견해<sup>28)</sup>가 제시되어 ③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담으로서의 本 전설의 성격상 그럴 가능성성이 희박함은 앞서 이미 지적되었다.

이상과 같은 추론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에밀레종〉 전설의 「자발보시」형이 ④의 경우처럼 에밀레종 주종 당대의 사실과는 무관하여 원래 전승되지 않았던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유형을 「여인실언」형에 이어서 뒷날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현존한 최대의 巨鐘으로 문양의 화려함과 조각수법의 우수성을 함께 지니는 봉덕사종의 유래담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설의 원모습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추정도 해보았다. 〈에밀레종〉 전설의 원형이 이렇다면, 「여인실언」형에서 「자발보시」형이 변모되어 나타나게 된 그 動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약탈에서 보시로 바뀌어 인주화생이 이루어지는 상반된 결과를 야기시킨 動因을 향유층의 의식의 개입에서 찾고자 한다. 즉 가난한 여인이 겪는 억울함과 시련에 동정하면서 사소한 실수를 가져온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향유층의 사고방식이 가미되어, 원래의 모습에서 변용되어 나타난 이야기가 「자발보시」형일 것이라고 보는

#### 140 참조.

- 27) 一然은 鄉傳과 같은 민간전승의 기록까지 참조할 정도로 구전설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李基白, 三國遺事의 史學史의 意義, 「韓國의 歷史認識」(上), 창작과 비평사, 1976, pp. 111-126.
- 28) 조동일, 삼국유사 설화의 기본성격,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p. 234.

바이다. 더군다나 종을 주조하는 佛事에 자발적으로 보시를 한다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이, 원래 개인적인 祈福意識으로 보시를 끈질 하는 향유층의 정서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강제적인 아이 약탈보다는 보시 쪽을 택하였을지도 모른다. 그 결과 「자발보시」형에는 여인의 억울함이나 경솔함보다는 순결한 희생이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 3. 〈에밀레종〉 전설의 소설적 변용양상

#### 3.1. 소설 〈神鐘〉과 〈에밀레종〉의 전반적 특징

##### 3.1.1. 소설 〈神鐘〉

〈에밀레종〉 전설을 소재로 작품화된 현대소설로는 朴容淑의 단편 〈神鐘〉<sup>29)</sup>과 朴容九의 장편 〈에밀레종〉<sup>30)</sup>이 있다. 이 둘은 단편과 장편의 작품 길이라는 외형적 차이 외에도, 작가의 서로 다른 의식이 개입되어 소설에서 구현된 전설의 양상이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면 이들 두 작품이 보여주는 본 전설의 소설화 방식과 변용양상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작품별로 내용을 간단히 개관한 뒤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神鐘〉은 설화의 현대소설적 수용에 관심을 보여온 작가의 많은 단편 소설 중의 하나이다. 이야기는 이 년만에 세번째로 만들어지는 종이 자간 이하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울리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궁중변란으로 종이 부서지고, 새로 즉위한 혜공왕은 박한미를 보강하여 주조에 착수한다. 박한미가 하전을 부르자 하전은 주조 참여를 꺼려하여 자결하려다가, 용궁 노인의 조언을 듣는다. 그뒤 그는 주조에 참여하면서 자꾸 고의로 실패작을 만든다. 이어 어린애 인주 문이 퍼지고, 하전의 일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그는 위험에 직면한다. 결국 그는 과부 누이와 조카 봉덕을 살리기 위해 종을 완성한다. 그러

29) 한국문학대전집 17(강용준 박용숙), 서울, 태극출판사, 1969, pp.525-541.  
이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설화의 소설화 축면을 조명한 논고가 있다.

姜成千, 설화의 현대적 변용, 동악어문논집 제11집, 동아대, 1978.

30) 박용구, 역사소설 에밀레종, 大文社, 1961.

나 셋은 역적죄로 죽음을 당한다. 종소리 후일담」

이 작품은 과거된 종을 다시 만드는 데서부터 종이 완성되기까지의 단선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종을 완성하려는 조정과 이를 반대하는 신하 및 백성 사이의 갈등을 기본축으로 하면서, 후자를 대변하는 하전과 그 가족들의 항거와 희생이 부각되어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작가는 신종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속에 담겨진 비극적인 백성의 저항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이로 보아 작가는 다분히 민중사 중심의 이야기를 꾸미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었던 것 같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용신의 계시와 인주희생 여부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전자는 匠人에게 주종 참여와 방법을 깨닫게 하는 데서 그 기능을 발휘하며, 후자는 궁극적으로 장인이 종을 완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결말에 언급되는 종소리 후일담은 억울하게 죽은 백성의 울음소리로 설명되고 있다.

끝으로 등장인물은 단편답게 조정을 대변하는 각간과 박한미, 백성 편의 하전과 원조자인 용궁의 노인(용신)만이 등장할 뿐이고, 실제 역사적 인물은 별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들도 자기 생동성을 상실한 채 작가의 이념을 대변하는 군상에 불과하다. 다만 종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조정에서 퍼뜨린 인주소문에 인간적인 번민을 보이는 하전의 모습은 하나의 전형적인 인물로 승화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 3. 1. 2. 소설 〈에밀레종〉

〈에밀레종〉은 작가가 표제에서 보여주듯이 역사소설을 지향하는 장편 소설이다. 이 작품은 悲願 이하 完成까지 모두 12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앞의 경우와는 달리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인 순차단락으로 정리해 보이기로 한다.

1. 執事省 侍郎 昔景世와 상대동 朴神猷의 딸 昌花의 사반 소개
2. 細波女의 집에 거거하는 匠人 古多술와 그를 사모하는 세파녀
3. 석사랑은 대야한 金融에게 겁탈당할 위기에 처한 滿月大妃를 구출
4. 김옹의 반역과 석시랑의 진압
5. 시랑을 사모하는 보원의 주선으로 주종이 결정됨.
6. 황화를 후처로 삼으려는 이찬 金正門의 청을 상대동이 거절
7. 기름을 바치면서 석사랑의 품에 안기는 보원

8. 첫 주종 실패
9. 김정문의 지시로 심복 김중산이 일터의 순라를 살해. 일터의 동요
10. 대비가 銅과 군사의 보총을 거절하자, 창화는 시랑에게 보원의 도움을 청할 것을 권유
11. 순결한 아이나 처녀를 바쳐야 한다는 소신공양의 소문. 은동이를 바치려는 세파녀의 모친
12. 지아비가 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석시랑을 돕기로 한 보원
13. 계속된 주종 실패. 창화의 소신공양 결심
14. 김중산의 창화 납치
15. 소신공양의 결정. 은동이의 회생 날짜를 정하는 세파녀의 모친
16. 은동이 대신 셋물에 뛰어드는 세파녀(인주회생)
17. 김중산 일행의 일터 급습과 실패. 김정문의 죄상 탄로
18. 종의 완성. 고다사가 사라짐
19. 봉덕사 여승이 되어 석시랑에게 나타난 보원의 눈물
20. 종소리 후일담

위의 이야기를 남녀 애정갈등의 측면에서 다시 몇 개의 국면으로 재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1. 주종결정, 2. 애정갈등과 대립, 3. 주종방해와 원조, 4. 주종완성, 5. 애정갈등의 해소>와 같은 다섯 개의 국면이 될 것이다. 첫째 국면(단락 1-단락 5)에서는 뒤얽혀있는 남녀 애정관계가 소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주종배경이나 그 결정에 있어서도 애정사가 큰 작용을 하고 있다.

둘째 국면(단락 6-단락 8)에서는 애정의 삼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주종과정에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각각 김정문과 보원의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주종에 있어서 이와 같은 그들의 역할은 작품의 후반부까지 지속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셋째 국면(단락 9-단락 15)에서는 둘째 국면에서 보이는 김정문과 보원의 행위가 계속 주종일을 방해하거나 원조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주종을 둘러싸고 남녀의 애증이 증폭되고 있다. 넷째 국면(단락 16-단락 18)에서는 세파녀의 소신공양과 김정문 일파의 주조 방해 사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세파녀의 행위이다. 그녀는 주종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된 중심인물이 아니면서

도, 정작 종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처지도 아닌 서민인 그녀가 사랑을 위하여 몸을 바친 것이다. 이 점을 이 작품에서는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다섯째 마지막 국면에서는 앞서 드러난 애정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김정문은 반역죄로 옥에 갇히며, 보원은 사랑과 창화의 진정한 사랑에 물러서서 봉덕사의 여승이 된다. 그러나 고다사와 세파녀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난다. 그녀가 죽자 고다사는 실성한 채 산 속으로 사라진다.

남녀 애정문제가 크게 부각된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으로 등장인물이 악인형과 선인형으로 뚜렷히 구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악인형으로는 김운과 김정문, 그리고 그의 침복인 김중산과 그 일당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외 인물들은 선인형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특히 김운 외의 악인은 신종의 주조에 호의적이지 않고 방해자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작가가 그려내는 중심 인물들의 성격들을 주제와 관련시켜 살펴보면 흥미가 있다. 석시랑의 경우 그는 냉철하면서도 뜨거운 마음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그는 고다사와 계급을 초월한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인간관은 작가가 이 작품에서 그려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보여진다.

창화와 보원을 보면, 창화는 순종적이지만 인내심이 강하여 國事を 위하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사랑을 희생할 줄 아는 여인이다. 그러기에 그녀는 인주희생을 결심한다. 반면에 보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을 지닌 여인이다. 그녀는 궁중에서도 사모하는 석시랑의 품에 뛰어들 만큼 사랑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그녀는 고귀한 신분이면서도 권력을 과시하지 않고, 석시랑과 창화의 사랑을 이해하고 물려설 줄 아는 인간미가 넘치는 여인이다.

세파녀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시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은근한 애정을 보여주는 여인이다. 그런데 그녀와 고다사의 사랑은 불행한 결말로 끝맺는데, 죽음으로 승화된 것이어서 비극적이지만은 않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에서는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는 석시랑과 창화의 상충의 사랑뿐만 아니라, 세파녀와 고다사의 서민 사랑에도 촛점이 놓여져있는 듯하다. 결국 작가가 사랑의 전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들 두 쌍의

사랑인 셈이다. 양자 모두 헌신적이고 회생적이며 인간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하층을 관통하는 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자 이 작품의 주제에 해당한다.

### 3. 2. 설화의 소설화 양상과 문제점

#### 3. 2. 1. 역사와 허구의 거리

소설 〈신종〉과 〈에밀레종〉은 성덕대왕신종이 주조되던 신라중대의 역사적 사실과, 여기에 얹힌 〈에밀레종〉 전설을 소재로 소설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역사적 사건과 고전설화를 소설화할 때는, 필연적으로 작가가 해당 史實을 바라보고 재해석하는 시각과 관점이 작품 속에 반영될 것이며, 아울러 고전설화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작품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소설이나 또는 설화를 소설화한 작품을 대할 때는 항상 작가의 역사의식이나 소설화 방식을 문제삼게 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거 역사를 무대로 삼은 소설에 있어서, 작가가 당대의 시대상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는지 여부가 가치평가의 준거가 됨을 알고 있다.<sup>31)</sup> 그런데 작가가 지나치게 과거를 과장하거나 신비화하는 일,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역사관을 주입하는 일, 소재로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변조하는 일 등을 참다운 역사소설의 수립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기에 그 시대의 사료들을 어떠한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작품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두 소설 속의 사건들과 역사적 사실과의 상관성, 작가 의식의 측면 등을 조명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다. 두 편을 검토하기 전에 실제 역사상 성덕대왕신종이 어떻게 주조되었으며, 당시 신라의 정치적 배경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소설적 진실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혜공왕대는 신라 역사상 中代와 下代가 교체되는 변혁기<sup>32)</sup>에 해당한다. 왕이 8세에 즉위하였기 때문에 실제 권력은 태후인 滿月夫人과 그의 측근자들인 金良相, 金邕 등이 갖고 있었다. 왕의 재위 18년 간은

31) 姜玲珠, 한국역사소설의 재인식, 창작과비평사, 1991, p. 20.

32) 자세한 것은 李基白, 신라 혜공왕대의 정치적 변혁, 「신라 정치사회사연구」

반란의 연속일 만큼 불안정했었는데<sup>33)</sup>, 이 와중에 신종이 주조되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李昊榮에 의하면<sup>34)</sup> 신종은 大恭의 亂이 있었던 혜공왕 4년에서 6년까지, 3년만에 주조되었다고 한다.<sup>35)</sup> 그런데 그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연관지워 혼란기에 주종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다음과 지적하였다. 즉 왕실에서는 신종주조를 통해 권위를 과시하고자 하였고, 김양상, 김옹과 그 일파는 주종참여를 통해 그들의 기반을 다지려 했다는 것이다.<sup>36)</sup>

이상과 같이 신종주조 당시의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았거니와, 이를 토대로 역사적 사실과 소설 속의 허구와의 거리를 따져보자. 작가 박용숙은 설화의 소설화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작업의 목적은 소위 ‘考古學的 방법에 의한 復元’에 있는 것 같다.<sup>37)</sup> 곧 그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깊은 전설을 통해 자신의 역사관에 의해 당시 실재에 가까운 史實을 재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종〉을 보면 그러한 작업에는 작가의 차의적 조작이 짙게 내포되고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거나 왜곡시키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작품 속에서 소위 ‘역사적 사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경덕왕 24년 6월 세번째로 종이 완성됨. 궁성의 변란 와중에 반란 군사들에 의해 종이 부서짐. 혜공왕이 즉위하자마자 주조를 다시 명함. 각간이 신종으로 두 先王이 비명에 죽었다는 이유를 들어 중지를 간언함〉

구」(일조각, 1974) 참조.

33) 혜공왕대의 반란의 성격에 대한 언급은 이기백, 위의 논문, pp. 228-237, 姜聲璣, 신라시대 반역의 역사적 성격, 한국사연구 43, 1983, pp. 30-40 참조바람.

34) 이호영(1974), 신라중대의 왕실과 봉덕사, 사학지 제 8집, 단국대 사학회. \_\_\_\_\_(1975), 성덕대왕신종명의 혀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고고미술 125, 한국미술사학회.

35) 이호영교수는 銘文解讀을 통하여 경덕왕대에 주조를 착수했다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공의 난을 주조 착수의 상한식으로 보고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거하여 왕 6년을 하한선으로 잡을 수 있어서 신종은 3년만에 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호영(1975), pp. 12-15.

36) 이호영(1974), pp. 13-15.

37) 자세한 작가의 발언은 그의 소설 〈志鬼正傳〉 속의 “필자와의 대화”란을 참조바람. 문학사상, 통권 6호, 1973. 3, p. 59.

등을 뽑을 수 있다. 그러나 史書에는 경덕왕대에 신종을 완성했다는 기록을 찾기 어려우며, 同王代의 신종 주조 착수 사실조차 의문을 제기하는 논고도 있다.<sup>38)</sup> 게다가 두 임금(효성왕, 경덕왕)이 신종주조로 비명횡사한 일이 없으며, 경덕왕대의 반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경덕왕을 토착종교를 말살한 장본인으로 설정한 점, 신종이 완성되면 주물공이 당연히 회생되고 왜병이 쳐들어 온다고 처리한 점 등도 비약이 심하다.

그리므로 작가는 〈신종〉에서 역사적 사실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왜곡하여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당대의 사실을 민중적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억압받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주조 자체를 부정적으로 처리하고, 왕실과 서민들(귀족까지 포함)의 대결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한 작가의식의 소산이다.<sup>39)</sup> 주지하듯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은 작가의 창조적 상상력을 기본적으로 제 약한다. 그렇다고 작가가 지나치게 考證에 얹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작가가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까지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왜곡할 수는 없다. 이 점은 〈신종〉의 작가에게도 적용된다.

어쨌든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면 허구성을 본질로 하는 소설일지라도 그 史實을 잘못 인용하거나 왜곡시키면서까지 작가의 의도를 표출한다는 것은 무리임을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재의 주관적 裁斷에도 불구하고, 〈신종〉을 통하여 벗겨진 어두운 역사의 참모습으로서 약자의 회생과 저항적 행위의 비극적 진실성, 인간의 실존의 의미 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강성천의 지적<sup>40)</sup>은 이 작품의 성과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본다.

‘역사소설’임을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에밀레종〉을 대할 때 우리는 역사적 진실성<sup>41)</sup>을 문제삼게 된다. 성덕대왕신종의 주조를 배경으로 생

38) 주 33) 참조.

39) 이 작품을 보면 백성들의 왕실에 대한 반감이나 그들의 현실인식이 지나치게 미화되어 있는 점도 문제삼을 만하다.

40) 강성천, 앞의 논문, p. 296.

41) 역사적 진실성은 사실의 정확한 재현이나 올바른 역사의식 뿐만 아니라 예술적 형상화의 방법에 의해서도 좌우된다고 한다. 강영주, 앞의 책, p. 222.

겨난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역사소설이라면, 주종에 관련된 신라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나 민중적 생활이 필연적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참다운 사실주의적 역사소설이 애말로 현재의 前史로서 과거의 역사를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함을 아는 터이다.<sup>42)</sup>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작품을 살펴보면, 신종 주조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허구적 인물이 다수 등장하여 역사적 실재 인물과 어우러져 사건이 꾸며져가고 있음이 우선 주목된다. 다시 말하면 史實과 虛構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실제로는 역사를 의괴로 삼았을 뿐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이 작품의 전체 이야기가 ‘봉덕사종의 주조 동안에 벌어지는 애정담’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자체는 중시되지 않은 탓이다.

한편 역사적 사실의 진실성 문제를 살피고자 할 때 주목되는 사건은 김융·김정문의 반란<sup>43)</sup>이다. 김융의 반란은 혜공왕 6년 8월에 일어난 것으로 反惠恭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김융이 단순히 대비를 연모하여 겁탈하려다가 실패하자 반역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결국 작가는 이 난의 성격을 크게 훼손시킨 셈이다. 또한 반란 진압 뒤 주종에 착수하여 1년이 걸려 종이 완성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삼국유사의 동왕 ‘6년 12월 주종완성’ 기록을 감안하면 기간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게다가 김정문<sup>44)</sup>의 반란이 동왕 11년 8월의 일인데도 여기서는 반란을 신종주조 기간으로 앞당겨 설정했고, 또한 그를 개인적인 애정 속망 때문에 주종을 방해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으니 사실의 왜곡이 실하다.

이와 같이 작가는 소재가 되는 史實에 무지했거나 이를 무시한 결과,

42) 역사소설의 본질과 유형분류 문제는 강영주, 앞의 책, pp. 12-21 참조바람. 본고에서 사용하는 사실주의적 역사소설과 낭만주의적 역사소설의 구분과 개념은 강영주 교수의 논지를 따랐다.

43) 이 두 鬪에 대한 성격과 의의는 이기백, 앞의 논문의 논지에 따른 것임을 밝혀 둔다.

44) 김정문은 혜공왕 6년 12월에 김온거의 뒤를 이어 侍中이 되었다가 왕 11년 3월에 同職에서 물러난다(삼국사기 권제 9 新羅本紀 惠恭王條).

작품 속에 이를 정확히 인용하거나 재현하지 못했고, 아울러 그릇된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작품에서 당대의 실상에서 벗어나 민중들의 생활상이나 사회적 갈등은 다루지 않고, 주인공의 개인적인 애정 문제에 국한시켜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역사를 私事化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이 작품은 역사적 진실성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통속적 오락물의 성격을 지니는 낭만적인 역사소설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겠다.

### 3. 2. 2. 〈에밀레종〉 전설의 수용양상

앞서 우리는 〈에밀레종〉 전설을 대할 때 자료에 따라 인주회생이 약탈과 보시라는 상반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어서 두 유형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두 유형 사이에는 내용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① 종의 실패, ② 원조자의 교시, ③ 인주, ④ 아이의 울음소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공통적인 모티프를 감안하면서 위 두 작품을 살펴보면, 소설 〈신종〉에서는 외형상으로 네 모티프가 모두 활용되고 있으며, 〈에밀레종〉에서는 ‘② 원조자의 교시’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모티프가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두 작품에 차용된 이야기는 차라리 「자발보시」형에 가까운데, 특히 「여인실언」형의 핵심적인 요소인 「여인실언」과 「아이약탈」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이 요소가 지니고 있는 여인의 억울함이나 시련, 인간의 실수, 약탈 등과 같은 함의가 작가의 소설적 상상력을 제약하여, 쉽게 소설적 소재로 차용되지 못했던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소설 〈신종〉에는 네 개의 핵심 모티프가 전설에서 지향하던 본래의 의미를 捨象한 채 다른 모습을 띠고 나타난다. ‘종의 실패’ 모티프는 전설에서처럼 주종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에서 오는 것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여기서는 주물공 하전의 고의적인 실수에서 오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기에 신종 주조 동안의 정성스러운 모습은 처음부터 찾아 볼 수 없다.

‘원조자의 교시’ 모티프를 보면 종신의 혼시 대신에 용궁의 노인(곧 용신)의 혼시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 용신의 혼시 또한 다른 자도에서 활용되고 있다. 즉 전설에서는 이 모티프를 통해 거듭된 실패를 막

고 신종을 속히 이루기 위한 부처의 뜻을 전하는 神人合一의 경지를 엿보이게 하나, 이 작품에서의 용궁 노인의 현시는 하전에게 자살 대신에 주종의 고의적 실패라는 참여를 통한 저지를 권유한 데서 보듯이, 왕권에 대항하는 집단을 위해 돋는 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종주조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호국신인 용신까지도 반대하는 役事が 되고 만다.

‘인주’ 모티프는 〈에밀레종〉전설의 핵심요소인 바, 중요한 공사를 완성시키는 데는 인간의 정성스런 노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회생까지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신종〉에서는 조정에서 종을 완성시킬 목적으로 인주 소문을 퍼뜨린 데서 보듯이,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작가에 의해 조정과 백성의 갈등을 첨예하게 증폭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권력층의 비열함과 비인간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모티프를 활용한 것이다. 게다가 작가는 작품 서두를 경덕왕 24년 6월 어느 날의 종 완성 사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서, 애초부터 이 인주모티프가 들어설 틈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인주회생이 실제로 감행되지 않고 종을 완성시키기 위한 강압적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데 있다. 조정에서 하전의 누이와 조카봉덕이에 대한 살해를 위협하자, 하전이 어쩔 수 없이 어린애를 쇳물에 넣지 않고 종을 완성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뒤 셋은 반역죄로 처형된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인주모티프가 전설에서 보여주는 ‘주종을 위한 정결하고 성스러운 회생’의 속성이 제거되고, 대신에 ‘권력의 강압과 奸計, 그리고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속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므로 ‘아이의 울음소리’는 〈신종〉에서 억울하게 죽은 세 사람의 울음소리로 설명된다. 곧 장안의 모든 사람들은 종소리에서 성덕대왕의 神音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의 울음소리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신종〉은 〈에밀레종〉 전설을 소재로 삼았으면서도 전설의 핵심적인 요소를 작품의 주제에 맞추어 변용시켜 이야기가 지니는 참된 의미를 망각시키고 있다. 그 결과 전설은 이 작품에서 서사전개의 전체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으나, 본래의 모습을 갖지 못한 기형성을 띠고 말았다. 이렇게 된 데는 일차적으로 작가가 이 전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그 책임이 있다. 그리고 작가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국가와 백성의 갈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전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만 설화 수용의 부정적인 측면 또한 그 원인으로 삼을 만하다.

다음, 소설 〈에밀레종〉에서는 本 전설의 핵심적인 네 모티프 중 ‘원조자의 교시’만이 구체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종의 실패’ 모티프는 주종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어서, 전설에서의 전개 양상과 동일하다.

‘인주’ 모티프를 보면, 이것이 주종에 있어서 큰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사랑이나 신앙심 때문에, 이 문제에 고민하고 있다. 즉 창화는 석시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 하며, 세파녀의 모친은 佛心에 의해 세 살된 아들 은동이를 바치기로 한다. 그러나 결국 세파녀가 고다사를 위하여 쇳물에 뛰어든다. 이처럼 처녀가 사랑의 힘으로 희생을 감행한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불심으로 어린 자식을 바쳤다는 전설의 것보다는 희생의 성격이나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이 인주 문제가 원조자의 교시로서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고, 소문으로 부각된다는 점 또한 특징으로 삼을 만하다.

그러므로 이 작품 속의 ‘아이의 울음소리’는 전설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실수를 원망하는 서러운 소리로 들리지 않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소설에서 종소리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本 전설을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이야기로서 수용하고 그 의미를 보다 개방시키고 확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작가는 소설 〈에밀레종〉에서 전설을 소재로 삼으면서 이를 충분히 이해하여 핵심적인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즉 전설의 본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주제에 맞추어 적절히 재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작가는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고전설화를 재평가하고 활용하는 설화 수용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 4. 결 론

본고는 설화문학연구의 일환으로서 설화를 소재로 한 현대소설을 택

하여 작품 속에 나타난 설화의 변용양상을 고찰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이에 우리는 성덕대왕신종의 유래담인 〈에밀례종〉전설과 이를 소설화한 현대소설 〈신종〉과 〈에밀례종〉을 택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고에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전설은 상반된 의미를 지니는 두 유형군의 각편이 전승되고 있다. 「여인실언」형은 여인실언과 아이약탈의 축면이 강조되어 왕실과 여인의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이 드러난다. 반면 「자발보시」형은 여인의 보시와 희생, 그리고 주종과정의 정성이 강조되면서도, 개인적 능력과 왕실·國人의 갈등이 부각되어 있다.

둘째, 이 전설의 핵심요소로서 ① 주종의 실패, ② 원조자의 교시, ③ 인주, ④ 아이의 울음소리가 추출된다. 또한 서사무가 속에 삽입된 이 전설의 모습과, 삼국유사 기록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전설의 원형은 두 유형 중 「여인실언」형일 것이다. 그리고 「여인실언」형에서 「자발보시」형으로 변모되어 나타나게 된 動因으로 향유충의 의식의 개입을 들 수 있는 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의식이 가미되어 원래의 모습을 변모시킨 것이다.

셋째, 현대소설 〈신종〉에서는 종을 둘러싼 조정과 백성의 저항을 그려내고 있으며, 〈에밀례종〉은 봉덕사종의 주조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남녀 애정담’의 성격이 강하다.

넷째, 〈신종〉에서 작가 자신의 역사관에 의해 당시 실재에 가까운 史實을 재구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자의적인 조작이 절어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거나 왜곡시키는 부분이 많다. 다만 약자(백성)의 희생과 저항을 조명함으로써 가려진 역사의 참모습을 재구하려고 한 노력은 작품의 성과로 보여진다.

다섯째, 〈에밀례종〉에서는 史實과 虛構가 공존하는데 이 모두가 주로 주인공 남녀의 애정에 종속되어 있다. 이 작품 역시 역사적 사실의 무시와 왜곡이 심해 역사적 진실성 획득에는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당대의 실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애정문제에 국한된 통속적인 오락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섯째, 〈에밀례종〉 전설은 두 작품 모두에 「자발보시」형이 차용되고 있으며, 네 개의 핵심적인 요소가 대부분 발견된다. 그러나 〈신종〉에는

네 개의 핵심 모티프가 전설에서 지향하던 본래의 의미를 捨棄한 채 다른 모습을 띠고 나타난다. 설화의 소설화 방식과 그 의의에 관한 한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에밀레종〉에서는 ‘원조자의 교시’만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설의 본래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주제에 맞추어 핵심요소들을 적실히 재배치하고 있다. 설화수용의 공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